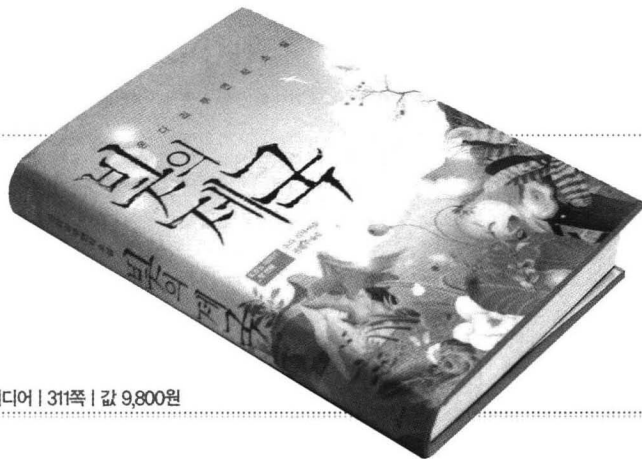


도코노(常野) 일족이 안내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판타지의 세계 《빛의 제국》

글_ 박귀영 국일미디어 일서기획자



《빛의 제국》 온다 리쿠 지음 | 권영주 옮김 | 국일미디어 | 311쪽 | 값 9,800원

맨 처음 온다 리쿠라는 작가를 만난 것은 소설 《Q&A》를 통해서였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이 소설은 특이한 내용 뿐 아니라 300페이지가 넘는 이야기 전체가 인터뷰로 되어 있는 독특한 구성이 나를 온다 월드에 푹 빠지게 만들었다.

이후 그녀의 이름이 보이기만 하면 무슨 책이든 집어 들었고,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 바로 《빛의 제국》이었다. 이 책은 도코노 일족에 대한 이야기다. ‘도코노’(常野)란 늘(常) 재야(野)에 있으라는 의미로, 일본 도호쿠 지방에 있는 어떤 마을이자 그 마을에 사는 일족을 의미한다.

사실 이 책을 읽는 내내 아름다운 패치워크가 생각났다. 떨어져 있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조각들이 하나로 엮어져 더욱 빛을 발하는 패치워크처럼, 이 책 역시 단편 하나하나가 충분히 개성 있는 색을 내며 장편의 여운을 주면서도 각 단편의 주인공들이 다른 단편에 영향을 미쳐 더욱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읽고 있으면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원고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다. 책의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시작해 표지, 본문 디자인이 떠오르고, 결국에는 ‘아, 만들고 싶다’ 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어버린다. 그리고 《빛의 제국》은 다른 어느 원고보다도 강렬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원래 한 권의 책을 만들 때마다 그것을 만드는 기획자의 고생담 역시 한 권의 책으로 엮을 수 있을 정도겠지만, 이 책은 유난히 힘이 들었다. 승인을 늦게 내주기로 악명 높은 슈에이샤 덕분에 오퍼를 내고 6개월 넘게 온다 리쿠는 어떻게 된 거냐고 사람들이 물어올 때마다 애꿎은 예이전시 담당자에게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겠다고 협박을 했던 일부터 시작해서 한창 번역 중에 김영하 작가의 동명 소설인 《빛의 제국》이 출간돼 깜짝 놀랐던 일, 표지 일러스트가 잘 나오지 않아 몇 번씩이

나 그림을 바꿔야했던 일, 부드러운 걸모습과는 달리 약간은 고집이 있으신 역자에게 교정 문제로 장문의 편지를 써야했던 일, 그리고 덜컥 예약 판매를 하기로 결정되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빡빡한 일정으로 힘든 제작자를 괴롭혀야했던 일까지 말이다. 무엇보다도 비슷한 시기에 우르르 출간된 온다 리쿠의 다른 소설들로 인해 이 책이 묻히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왜 이 일을 시작했을까 푸념했지만, 막상 서점에서 여러 책들 사이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책을 보자마자 이런 생각은 눈 녹듯 사라졌다. 아, 이래서 책을 만드는 데 중독이 되나보다. 물론 다음 책을 시작하면서 다시 푸념이 시작됐지만 말이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책을 읽고 한 명이라도 더 행복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추천**

이제 국가의 품격을 찾을 때다! 《국가의 품격》

“들에 피는 제비꽃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논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 모차르트 음악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아름답다. 비겁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조차도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 요컨대 중요한 것의 대부분이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일본의 수학자 후지와라 마사히코 교수는 《국가의 품격》에서 논리와 합리를 앞세운 서구 사상의 맹점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논리만으로는 세계가 파탄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한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 무한 경쟁이라는 총성 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다. 20세기가 끝날 무렵부터 발호하기 시작한 글로벌리즘은 냉전 이후 세계 제패를 노리는 미국의 치밀한 전략이다. 슈퍼 파워 미국의 힘을 거역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 결과 경제 패권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고, ‘승자독식제’(winner takes all)라는 약육강식의 전투장이 되어 버렸다. 승자가 모든 것을 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

느 나라에서나 빈부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대도시의 발전과 시골의 쇠퇴가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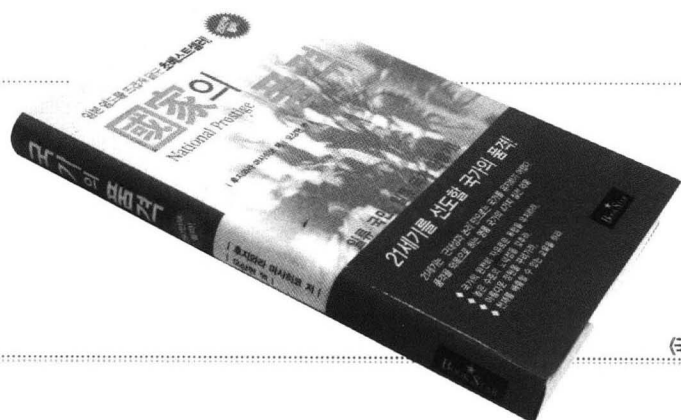
경제에서 출발한 글로벌리즘은 사회, 문화, 교육을 비롯하여 국민성에 이르기까지 부식시켰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여 가정 붕괴와 교육 붕괴 등 무너지지 말아야 할 가치들마저 속절없이 무너지며 갖가지 사회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일본은 10년 장기 불황을 극복하고 회복기에 들어섰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장기 불황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광풍이 몰아치듯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정황이 불황에 빠져들던 그 무렵의 일본과 흡사하다. 불패 신화를 자랑하던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자, 빗까지 져가며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부터 먼저 피해를 입었고, 그 여파가 도미노처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긴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잃어버린 10년’ 불황의 끝머리에 출간되어 지난 한 해 동안 일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 《국가의 품격》이다. 국

가의 품격을 높여 미국의 자본 패권주의에 당당히 맞서 승리하는 것이 세계에서 존경 받은 일류 국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품격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독립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 아름다운 자연 환경, 그리고 천재를 배출하는 교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마치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가슴을 치는 내용들이 아주 많다.

지금 우리 사회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엉망으로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이리저리 얽히고 꼬여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바다 저 멀리에서 우리를 삼시간에 집어삼킬 엄청난 태풍이 잉태되어 쭈뼛 커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망국적인 당파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언론 또한 기를 쓰고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으며, 지식인들은 행동하지 않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이웃나라 일본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품격을 드높이고 국가의 미래 비전과 방향을 잡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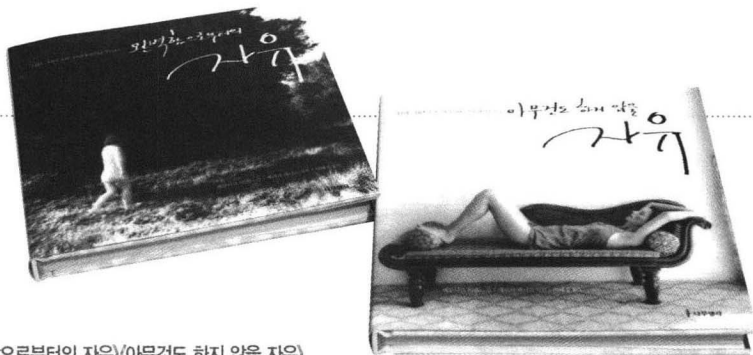
글_ 이명수 광문각&북스타 편집부장

《국가의 품격》 후지와라 마사히코 지음 | 오상현 옮김 | 북스타 | 255쪽 | 값 11,000원

당신에게 드리는, 우리가 잊고 있는 것들

《완벽함으로부터의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글_한순 나무생각 편집주간



《완벽함으로부터의 자유》(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베로니크 비엔느 지음 | 에리카 레너드 사진 | 이혜경 옮김 | 나무생각 | 135쪽 | 각권 값 8,800원

기다란 소파 위에 가장 얇은 속옷을 입고, 팔을 위로 올린 채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여인. 깊은 산속 야외 온천에 한 오라기도 걸치지 않은 남자가 숲 사이로 떨어지는 가느다란 폭포수를 나무의자에 걸터앉아 한가롭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 우거진 숲 옆 잔디 길로 이제 갓 두 돌이 됐을 아기가 맨 몸으로 걸어가고 있다.

《완벽함으로부터의 자유》(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두 권의 책을 원서로 받았을 때 필자는 사진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책의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사진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명상을 위해 조용히 내려진 커튼, 정갈하게 정리된 방석, 아름다운 정원에 비어 있는 의자, 길게 누워 늘어지게 하품을 하는 개, 빛 밝은 곳에서 고르게 숨만 쉬고 있는 고양이. 바닷가에서 바람을 느끼는 여인.

그저 사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휴식이 느껴지는 책이었다. 이 책들은 조용히 묻고 있었다. “당신은 지쳐버린 느낌이 드는가?” 불현듯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

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 본 게 언제였는가?’ ‘모두 잊고 해안가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느낌을 즐겨 보았던 게 언제였는가?’ ‘음, 몸을 잊은 게 언제이지?’

“우리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삶은 너무 적게 누려왔다.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추고, 조급한 마음과 치진 가슴을 위한 베로니크 비엔느의 매력적인 처방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읽어보라.” 새라 반 브래스나흐(《단순한 풍요》의 저자)는 이 책을 읽은 느낌을 이렇게 전해 왔다.

매력적인 문장들은 일에 둘러있는 필자의 세포들을 두드렸다. ‘운동화를 신어 보라’ ‘약간의 상상력만 있으면 당신은 소로의 발자취를 따라 유유히 거니는 삶을 살 수 있다’ ‘깨달음이란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상태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우주에는 빈 공간이 많다. 그리고 그런 빈 공간을 통해 우주가 모습을 드러낸다.’

나도 모르게 깊은 숨이 한번 내쉬어졌다. 이제 당신도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자

유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하나만 더. 제발 부탁하건대 “자신을 용서하라!” 지금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꾸짖고 있다면, 필자가 이 책을 읽으며 필자 자신을 용서하게 한 아름다운 단어 몇 개를 소개하고 싶다.

‘실수’ ‘수줍음’ ‘자기답게 보이기’ ‘올바른 생활로부터의 자유’ ‘무능함’ ‘어리석음’ ‘부와 명성으로부터의 자유’ ‘일단 당신 자신과 화해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가장 완벽한 순간은 대개 가장 불완전한 시간에 만들어진다’ ‘완벽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우리가 지구를 위해 정원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숨을 내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내보낸다.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며 태양의 빛 에너지가 우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화학물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숨만 쉬어도 지구의 사막화를 막아주고 있는 것이다. **★**

중세인들은 왜 그토록 이 책에 열광했는가?

《바보배》

《바보배》는 시대적으로 보면 브란트가 살았던 중세 말기 세상의 무질서와 혼란을 비판한 최초의 작품이다. 브란트가 그린 세상은 어둡고, 맹목과 죄악이 끊이지 않으며, 거리마다 바보들로 가득하다. 그는 자기를 둘러싼 시대가 내적으로 병들어 있으며, 전래의 사회질서는 도처에서 무너지고 있음을 인식했다. 이토록 병든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 그는 도덕적 개선을 실현하려고 했다.

그가 도덕적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교훈을 삼아 지도하려고 한 것은, 인간을 신에게 인도하고 혁명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띤 기독교적 신앙에 입각한 윤리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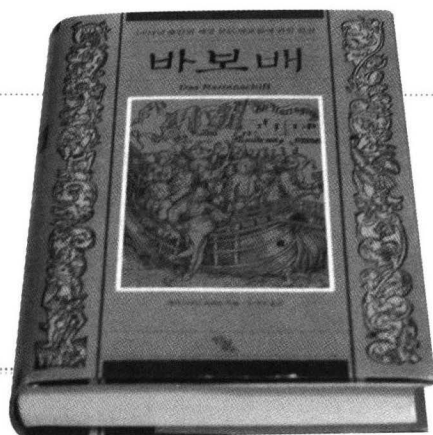
《바보배》가 인문주의의 대표작으로 잘 알려진 것과 달리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는 인문주의에 역행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고루하고 경직된 보수주의로 읽혀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물론 이 책의 도덕적 기독교적 논조는 새롭지 않다. 그렇지만 브란트의 의도는 단지 일반적인 도덕론

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통찰력과 판단력의 도움으로 스스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능력을 창조하려는 '근대적인' 노력이었다. 또한 이 책이 보수주의와 인문주의의 상반된 관점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브란트의 텍스트가 지닌 이중적인 성격 때문이다. 이중적인 성격은 역설적 찬사라는 모순어법에서 잘 드러난다. 고대 풍자문학의 수사법이었던 역설적 찬사란 예찬인 동시에 비난이다. 본래 역설적 찬사는 로마의 풍자문학 작가들이 애호하던 수법으로, 르네상스적인 운동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수법으로 브란트는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바보들을 불러내어 뛰어난 관찰력과 진지함으로 풍자한다. 그의 글은 생기발랄하고 인상적이다. 바보들은 엄격한 질서에 따라 분류되어 다른 바보를 나서거나 바보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매우 미세한 이념만을 우연히 공유한 채로 다른 한 명의 바보를 따라 나선다. 독자들을 즐겁게 하는 것은 바

로 어느 정도 느슨한 이러한 배열이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바보들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고, 사회적 개인적 악과 맹점의 모든 종류들을 조합하는 것이기에, 이 책은 당대 풍속에 관해 일주하는 풍자적인 그림이 되었다.

학자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브란트는 각 장마다 성경, 고전, 중세 저자들에게서 따온 풍부한 예를 첨부했으며, 좀더 소박한 독자들을 위해서는 많은 격언과 속담을 집어넣었다. 게다가 알브레히트 뒤러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알레고리적 목판화는 언어가 약간 무딘 곳에서조차, 전체 의도와 풍자를 더욱 살아나게 만든다. 그가 비난하고 풍자했던 대부분의 어리석음과 악덕은 보편적 공감을 얻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으며, 변환기에 대한 특유의 불평은 극도로 이 책에 잘 표현되어 있다. 브란트는 혁명을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개선을 시도했으며, 그 시도의 반동적이면서도 인문주의적인 정신은 《바보배》를 통하여 전 유럽에 전염되어 간 것이다. ■



글_ 박수민 안티쿠스 편집장

《바보배》 제바스티안 브란트 지음 | 노성두 옮김 | 안티쿠스 | 420쪽 | 값 28,000원